

# 歐羅巴 齒科大學街 散策

서울大學校 齒科大學 口腔外科

金 守 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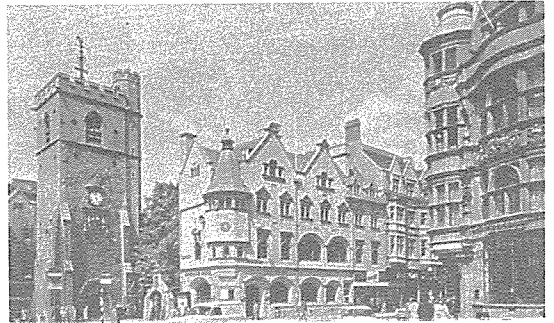
선배님들과 많은 동료들이 구라과여행을 많이 하셔서 별로히 할밭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專門的인 것이 아니고 내가 느꼈든 바를 조금 말씀 드리고 싶을 뿐입니다. 大學街를 散策한다는 것은 더없이 平安함과 無限한 世界를 느끼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大學의 歷史를 도시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큰 기쁨중의 하나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지난번 號 英國口腔外科界의 近現에서 론돈대학 치과대학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英國에서 歷史가 있는 大學부터 몇대학 말씀드리고 이태리의 롬대학과 치과대학, 스페인의 마드리드 대학교 치의학부, 불란서 파리대학교 치과대학, 그리고 화란의 암스텔람 대학교 치과대학 순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1.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과 캠브리지 대학교

옥스포드대학은 아테네, 롬, 파리등과 같이 구라과에서 제일 먼저 대학이 시작된 곳 중의 하나로서 영국에서는 처음 12세기초 그러니까 1164~69년에 창설 되었다고 한다. 학자들이 롬과 파리에서 와서 이곳에 몰려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세우고 근대 교육 시설을 갖추어 나갔다고 한다. 옥스포드는 기차로 1시간 거리의 론돈동북쪽에 위치한 아담한 대학촌이었다. 의과대학만 있고 치과대학은 처음부터 설치되어 있지 않고 처칠스 병원에 구강의 파란 외래환자와 의과대학의 강의를 담당하고 있었다.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대학은 임상은 거의 하지 않고 기초와 임상강의만을 하고 환자치로는 론돈등대 도시의 병원들을 이용하고 있었으며 론돈대학의 일부 학생들도 원하면 옥스포드나 캠브리지 대학에 와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있었다. 수많은 대학들이 따로히 건물이 있고 특히 파별로 옛날사

용하는 그 건물과 간판들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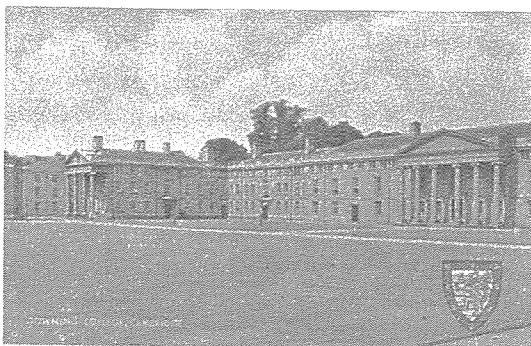
(그림 1. 옥스포드 대학)

캠브리지 대학은 1279년 몇몇 학생들이 옥스포드로부터 이전하여 와서 또 교수들도 자연히 학생을 따라와서 대학촌을 건설 하게 되었다. 그래서 영국에서 2번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이 대학도 수많은 단과 대학과 학과 중심으로 옥스포드와 같이 강가에 위치한 Kings College의 모습은 정말 로맨틱한 미를 지니고 있었다.

博物館, 도서관, 학생기숙사 무엇하나 분위기가 대학과 관계 없는 것이 없었다.

학생들은 다른 곳에서 通學을 하지 않고 教授들도 거의 研究室에만 있으니 大學의 전통이 생기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았다. 문 석학들이 오고 가고, 노벨상을 받는 학자들과 어느 학생을 창설한 學者들이 수없이 열거되어 있었다.

찰스다윈(1809~82), 존밀턴(1608~74), 윌리엄 워즈워즈(1700~1850) 등의 학자들을 들 수 있겠고 대학박물관의 루벤스의 처음 작품의 색채와 미적감각은 황홀한 것이었다. 그리고 박물관의 뉴턴의 동상도 人間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장중한 것이었다.



캠브리지 대학의 한 단과대학

## 2. 스코트랜드의 그라스고 대학교

이 대학은 1451년에 창설되어 스코트랜드에서 제일 먼저 시작되었고 영국에서 네번째의 역사를 가진 대학으로서 방대한 대학 캠퍼스와 근처의 공원 박물관을 합쳐 하나의 시민의 文化的 안식처로 보였다. 특히 공원에 세워진 Lord Lister (1827~1917)의 동상은 더 없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유명한 外科醫로서 런던대학, 옥스포드와 캠브리지 그리고 그라스고와 에덴버러를 두루 다니면서 근대 의과계의 발전을 증기들을 마련한 분이였다. 그의 초상화가 영국 런던 초상화 박물관에 뉴턴, 다윈, 그리고 처칠등과 같이 대우를 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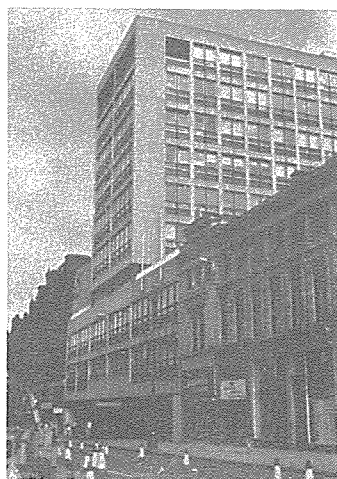
의과대학은 대학 본부에 같이 있었으며 치과대학과 병원 그리고 미술대학은 중심가에 있었다. 치과대학 정원은 75명으로 5년제 였으며 구강의과외과 교반 교수는 유명한 구강의과외과로서 市内중요한 病院을 돌면서 수술을 하여주고 있었다.

치과대학은 구건물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치과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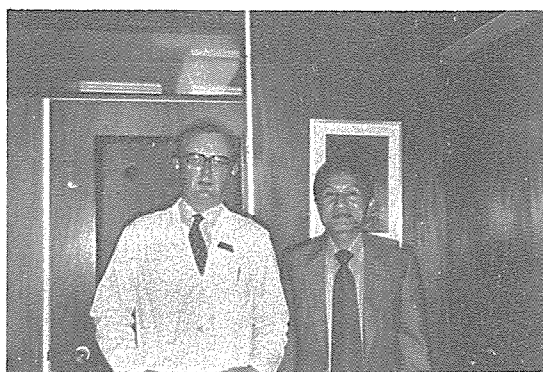


〈그라스고대학본부〉

원은 1970년에 새 건물과 시설을 하여서 영국에서 그 규모나 질로 보아서 대단히 좋은편이었다. 의과대학이 있지만 건물도 다르고 수술실과 모든 검사실도 같이 이용하지 않는것이 특징이었다.



〈그라스고대학 치과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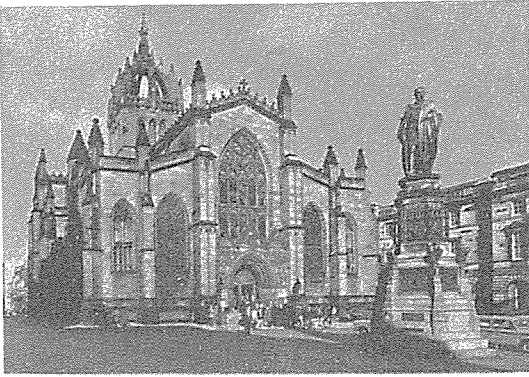
〈그라스고대학의 구강외과 “맥고반”교수〉

## 3. 스코트랜드의 에덴버러 대학교

이 대학은 1583년에 시작되었으며 영국에서 여섯 번째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큰 대학중의 하나였다. 에덴버러대학촌에 교회와 박물관, 그리고 각대학들이 한 캠퍼스에 있고 언덕에서 내려다 보이는 바다와 먼산, 그리고 고적들은 하나의 박물관과 같이 깨끗하고 그윽한 향기가 있는듯 하였다. 조용하고 우아한 질은 빛갈들은 그들의 젊음을 보이는 것 같았다. 이대학도 다른 영국의 대학들과 마찬가지로 치과대학, 의과대학이 따로 있었는데 치과대학은 1764년에 창설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발전하

고 있었으며, 한학년 정원은 60명으로 다른대학과 큰차이는 없었다. 그리고 임상각과와 특히 구강의과는 맥켄난 교수의 지도하에서 짜임새있는 기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라스고와 같이 의과대학과 수의과대학을 더 자랑하고 있었다. 구라파대학들은 거의가 목축을 주업으로 하고 있어서 수의학의 비중은 다른곳에 비하여 대단한 것이었다. 수술실, 강의실, 외래진료실이 한 건물에 있는것이 인상적이었다.

대학병원과 본부가 있는 중심가의 대학 분위기는 젊음의 낭만과 꿈과 철학이 있는 은은한 분위기였다.



〈에든버러의 한 교회주변〉

#### 4. 롬대학교 치과대학

이태리롬에 머무르는 동안 롬대학을 방문할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롬이 그렇듯이 청소나 외부적인 것에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것 같았다. 외모에 신경을 쓰지않는 노학자와 같은 인상의 도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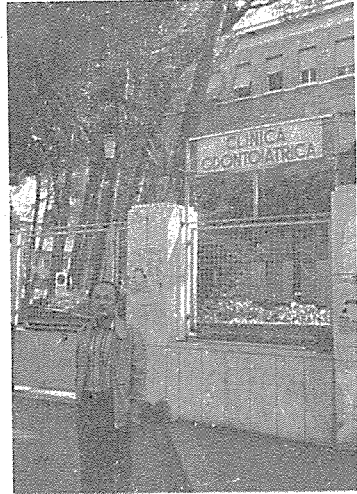
롬대학교 의과대학과 그 병원 옆에 치과대학과 병원이 있었다. 여기도 구라파에서와 마찬가지로 5년제로서 각과별로 발전하고 있었으며, 역사를 물으니 자기들은 잘 모른다고 한다. 그럴것이 언제부터 인지 딱집어서 말할수 없다는 것이다. 학장 카포지교수에 의하면 정원은 40명으로서 5층건물에 아래층은 소아치과, 교정과, 2층이 X-Ray와 보철과, 치주과와 학장실, 3층이 구강의과와 수술실 회복실등이 있고, 4층은 병실에 몇사람이 입원되어 있었으며 전문의 제도가 있었고 4~5학년은 강의보다 임상에 치중한다는 것이었다. 카포지 학장과 이야기 하면서의 느낌은 文化와 전통, 그리고 역사를 사랑하는 나라의 老教授다운면을 느낄수 있

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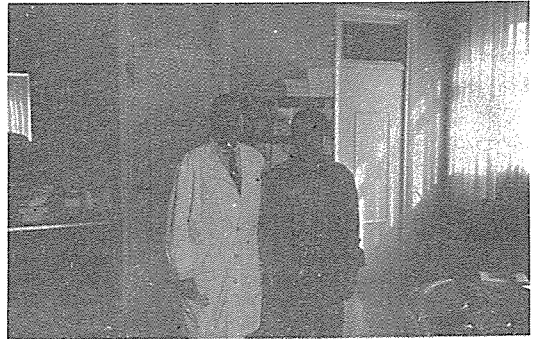
Rome이 지금은 옛날만은 못하지만(경제적으로) 그들의 성실함과 인간성으로 보아서 未來는 끝없이 이어갈것으로 밝은 전망이었다.

다른 병원의 일반인들의 간판이 꺼꾸로 붙어있는 것은 참 재미 있었다.

즉 산부인과, 일반의과등의 간판이 옆으로 붙쳐 있었으며, 해부학 교실등의 건물과 시설은 대단 하였으며, 고색이 찬연하였다.



〈롬대학교 치과대학〉



〈롬대학교 치대학장 카포지 교수〉

#### 5. 스페인 마드리드 대학교 치의학부

마드리드대학교는 중심가에서 차로 한 20分間 거리에 있는 교외로서 구라파에서 제일큰 대학캠퍼스라고 자랑하고 있었다.

마레시아대학이 이 마드리드대학의 본을 따서 창설하였고, 우리 서울대학의 구상이 마레시아대학에

서 예를 찾았다는데 잘알수 없는 일이었다.

하였든 규모가 크고 소박하고 의학캠퍼스는 권위가 있는 분위기를 의과대학, 약학대학과 같이 치의학부로 아주 뚜렷한 자리를 찾아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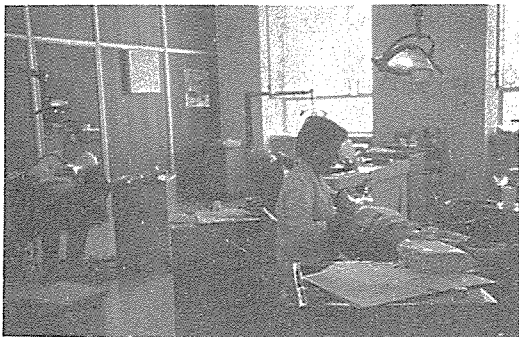
의학캠퍼스 중간에 “人類를 求하는 표적”의 동상이 인상적이었다.



(마드리드 대학교 의학 캠퍼스)

치의학부는 의과대학 6년을 졸업하고 2년간 치의학을 전공하면 치과의사가 되며, 또 3년을 하면 치과 각과의 전문의가 될수 있다고 한다. 다른 구라파 나라들과 다른 제도를 가지고 있었으며, 한학년이 100명씩이였고 치의학부는 마드리드 대학에 단 하나뿐이 였다.

치료실은 치과치료의자가 150개 정도로 아주 큰 방 하나를 가운데 복도가 있고 그대로 터서 넓게 사용하고 있으며 南쪽에 병리학교실과 소아치과치료실만 따로이 있었다.



(마드리드 대학치대 소아치과)

의학캠퍼스는 잘 가꾸어져 있었고 마주 보이는 자연과학대학은 한 20층은 되어보이는 큰 건물이였고 수없는 건물들이 언덕밑으로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병리학 교수들이 암환자들을 보고 있었으며 도서실, 강의실, 그리고 박물관에 교수들의 흉상과 초상화등이 진열되어 있는것이 인상적이었다.

스페인인 규모가 크고 진실한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는것 같았다.

## 6. 파리대학교 치과대학

파리대학교는 각 단과대학별로 따로따로 있어서 의대, 미술대학등은 中心街에 있었는데 齒大는 南쪽으로 中心街에서 차로 한 30분거리에 있었다. 그리고 골목도 좁고 건물은 아주 오래된듯이 보였다. 대학에서는 주로 강의만을 하고 임상은 큰병원치과에서 학생들의 교육을 시키는듯 하였다. 그것은 얼마전 사이곤(월남)대학의 치과대학의 교육제도와의 같은것이였다.

한학년은 70명 정도이고 4년제로서 그 교육제도는 구라파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다른교육수준에 비하여 치과는 보존과, 보철등 보존요법에 의존하는 정도인것 같이 느꼈다. 학기말 시험때라 교수들도 別로히 못 맞났고 강의실, 도서실, 연구실등을 돌아보고 대학의 안내서를 얻었고 강의와 실습은 짜임새 있게하고 있었으며, 학생들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自己들의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과제를 처리하고 독립성이 강한듯한 인상을 받았다. 건물은 크지 않지만 아담하고 역사와 기풍이 깃든 분위기를 읽을수 있었다.



(파리대학교 치과대학)

## 7. 화란의 암스텔담대학교 치과대학

암스텔담은 800개의 Canal과 1000개의 다리로서 이루어진 도시로서 自然이 아름답고 인심이 좋은

곳으로 大學은 中心街에 大學本部가 있고 醫科大學과 齒科大學, 그리고 大學病院은 文化시설들이 많은 南東部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리고 치과대학은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南측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구강외과, 보철과등으로 한과가 한 건물을 차지하고 있는것이 인상적이 었다. 구강외과는 큐센 교수가 지도하고 있었으며 단층건물로서 도서실, 수술실, 소수술실, 전신마취시설, 검사실, X-Ray, 그리고 회복실, 외래진료실, 입원실 20침상등의 시설을 갖춘 하나의 병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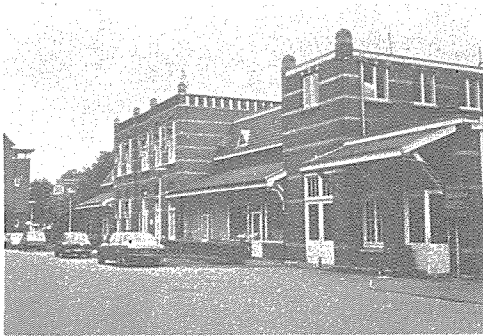
한 교수의 지도하에서 응급환자가 오면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처할수 있는 태도와 능력은 상당히 좋게 보였고 특히 큐센교수는 친절하고 키도크지 않고 중국사람과 같은 인상의 화란인이 었다.

특히 외래진료실 옆에 회복실과 병록실등 아주 편리하게 갖추어져 있었고, 큐센교수는 약속도 하지 않고 찾아간 외국인에게 自己의 강의재료와 그리고 시설 처치법등 자세히 설명하여 주고 있었다. 시간이 있으면 한 一週日間 있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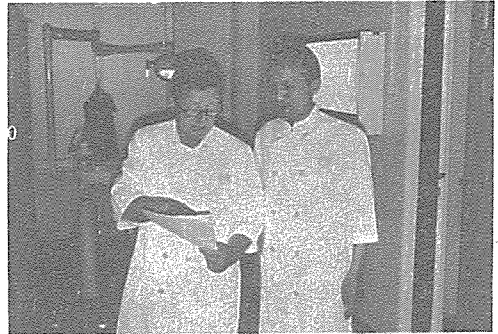
다시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고 싶은 곳으로 생각되었다.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과 진지한 태도는 그의 직분과 아주 어울리는 방법들로 생각되었다.

이 대학교 구라과 다른 대학들과 같이 5년 제로서 그 교육제도는 別 다른점을 찾아볼수 없었고, 각 과별로 독립적으로 기능에 맞게 과을 운영하고 있었다.



〈암스텔담대학 구강외과〉



〈암스텔담대학 구강외과 큐센교수〉

◎ 해외학술대회 참가자 모집

말레시아, 싱가포르 치과의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학술대회가 다음과 같이 개최되오니 많은 참가를 바랍니다.

다 음

- △ 일 자 : 1982년 4월 10~11일(2일간)
- △ 장소 : 말레시아 · 쿠아라룸플
- △ 등록금 : 말레시아달러 1백50불(27만 6천원)
- △ 주 제 : 「Periodontic in relation to Restorative Dentistry and General Practice -to include Current Preventive and therapeutic Concepts

- △ 신청마감 : 1982년 1월 15일
  - △ 신청서 : 대한치과의사협회 사무국
  - △ 자격 : 회원으로서 정관 제11조 및 제14조와 국제회의의 참가대표자 선발규정에 저촉되지 않는자(기타 자세한것은 사무국에 문의바람)
- 1981년 12월 일

大韓 齒科醫師協會  
회장 池 憲 澤